







***COLD  
AND  
REFRESHING!***

REACH FOR THE FIRST BOTTLE THAT TELLS YOU  
WHEN YOUR BEER IS COLD—THE COORS LIGHT® COLD ACTIVATED BOTTLE.  
IT'S WHAT COLD BEER LOOKS LIKE.

**21**  
MEANS 21®



THE WORLD'S MOST REFRESHING BEER™





*Miller*

NEW  
BOTTLE  
FRIDGE  
PACK

PACK ON

THE PROFITS



Great Taste...  
Less Filling.

USE SIDE  
CARRY  
HANDLE

*Miller*  
**Lite**



12-12 FL. OZ. BOTTLES

Only 3.2g carbs and  
95 calories. Choicest Hops  
for Premium Taste.

12-12 FL. OZ. BOTTLES



## 목 차

### Officers

#### President

Seong Chil Heo  
New York

#### Vice-President

Young Pil Kim  
Canada

#### Vice-President

Yo Seop Lee  
Washington D.C

#### Vice-President

Jong Heo  
Southern California

#### Vice-President

Hui Jun Kim  
Central California

#### Vice-President

Gi seon Choi  
Washington

#### Vice-President

Baek Gyu Kim  
Georgia

#### Vice-President

Won Jae Lee  
Colorado

\*\*\*\*\*

#### Auditors

Seung soo Lee  
Gwang Ik Lim

6. 회장 인사말

8. 이사장 인사말

9. 업계 뉴스

11. KAGRO 포토 갤러리

14. KAGRO 소식

17. 각 지역 협회소식

25. 경제 뉴스

36. 건강뉴스

38. 회장단 및 스폰서 소개

### Board of Directors

#### Chairman

Jin Sup Hong  
Washington D.C

#### Vice Chairman

Calvin Choi  
Arizona

#### Vice Chairman

Byeong Mok Gang  
New York

#### Vice Chairman

Gwang Seo Lee  
Maryland

#### Vice Chairman

kwang Yeol Na  
Harrisburg, PA

#### Vice Chairman

Se Ki Kim  
Chicago

\*\*\*\*\*

#### Advisors

Ki Ok Kim  
Yang Il Kim  
Ki Pung Jeon  
David H Kim  
Andrew Ku  
Ju Han Kim  
David kim  
Yong Wong Han



## CONTENTS

### Board Members

#### KAGRO International

Arizona  
LA California  
Central California  
Northern California  
Chicago  
Colorado  
Dallas  
Delaware  
Georgia  
Harrisburg  
Hawaii  
Maryland  
New York  
Oregon  
Philadelphia  
Tennessee  
Virginia  
Washington D.C  
Washington  
Calgary, Canada  
Edmonton, Canada  
Manitoba, Canada  
Ontario, Canada  
Quebec, Canada  
Vancouver, Canada  
U.K.B.A Canada

6. President's Message

8. Chairmans Message

9. Industry News

11. KAGRO Photo Gallery

14. KAGRO News

17. Chapter News

25. Business News

36. Health News

38. Board Members & Sponsors

### Editorial Staff

#### Publisher

Seong chil Heo

#### Editor

Justin Lee

#### Journal Advisor

Justin Lee

\*\*\*\*\*

International KAGRO  
is a member of the  
FMI Association  
Council and a  
member of the NGA  
Association Council.



## 회장 인사말

Greeting of President



허 성 칠 회장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 해 마지막 달력을 넘기며 새삼 화살보다 빠른 세월의 위력을 느껴 봅니다.

아울러 지난 1년 동안 본 국제 한인 식품주류상 총연합회와 함께 해주신 북미주 20만 식품인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회복세가 완연한 가운데 부푼 가슴을 안고 출발한 2014년은 우리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 것은 물론 갈수록 더 심한 불경기로 많은 스몰 비즈니스 맨들을 곤경에 몰아 넣었습니다.

지난 11월4일 실시된 선거를 통해 우리는 그 이유를 극명하게 알았고 국민들이 그 이유에 합당한 심판을 내렸다고 들었습니다.

지난 수 년 동안 일군 경제 성장은 극 소수 일부 계층이 모든 열매를 다 차지한, 일부를 위한 잔치였으며 신문지상에 보도된 실업률 저하도 결국은 만족스럽지 못한 일자리를 양산해서 만들어진 수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그에 따라 투표를 통해 민주당의 경제 실책을 심판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앞으로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한 이후로 미국의 경제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도 실물 경제에 보다 깊은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는 방향으로 나갈 것을 기대합니다.

본 국제 한인 식품주류상 총연합회는 앞으로 미국의 경제 정책을 더욱 주시하면서 실물경제의 중요한 주체 가운데 하나로서 동포 경제를 살리고 각 지역 중소기업을 활성화 하는데 앞장설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 드립니다.

이를 위해 2016년에 대규모 트레이드 쇼를 개최하기 위한 기초 조사에 착수했으며 각 분야별 전문가와 컨설팅을 앞두고 있습니다.

본 총연의 29개 챕터를 비롯한 북미주 한인 경제의 부활을 목표로 준비되는 트레이드 쇼에 총연 임원이사들은 물론 많은 경제인들이 벌써부터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에 어깨가 천근만근 무겁지만 불황을 극복하는 전환점으로서의 역사적 사명을 동시에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트레이드 쇼를 통해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는 시작부터 끝까지 회원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허 성 칠

국제 한인 식품주류상 총연합회장



Dear Members, how are you?

Compared to last year, time has sure flown by! Do you feel the same as I?

To start with, the International Korean Grocers and Licensed Beverage Association and I wanted to say thank you to all our 200,000 members, sponsors, and their family, for all of their support this past year.

Although the North American financial outlook was promising, small businesses in America are still lagging behind. We are struggling to fully recover from the recession that is still showing its unpleasant loose ends.

The outcome from the November 4th elections comes as no surprise. The Republican Party ended on top. In the past few years the wealthy has feasted on our economy; leaving the rest of us to starve. We fought back and protested the injustice. These elections are evidence of positive changes to come.

The International Korean Grocers and Licensed Beverage Association has been working dutifully to contribute and ensure that our small businesses are working to help not only ourselves but also our economy: working with manufacturers and distributors in North America, Asia, and Europe; hiring international consultants; both attending and presenting at international trade shows. We are on the path to bringing KAGRO up to speed in the economy. One of our many goals that we are working towards is to organize a KAGRO trade show in 2016.

I hope that you are just as excited as I for the future. I ask that we continue the support and feedback with each other to ensure the success for the future of KAGRO and our country's economy.

Thank you,

PRESIDENT OF KAGRO INTERNATIONAL ASSOCIATION  
SEONG CHEL HEO



## 이사장 인사말

Greeting of Chairmans



홍진섭 이사장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월 가는 게 잠깐이라는 말대로 벌써 올 해의 마지막 달이 우리 곁을 지나고 있습니다.

50차 총회와 51차 총회를 통해 불황 속 스몰 비즈니스가 가야 할 길을 모색하고 지역간 협력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불황 극복을 모색하면서 바쁘게 보낸 1년 이었습니다.

북미주 29개 챕터 20만 회원 여러분들이 지난 1년 동안 뿌린 땀방울이 씨앗이 되어 내년과 후년 그리고 그 후로도 계속해서 싹을 틔우고 줄기를 뻗어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우리는 계속 “내년에는 더 좋아지겠지”라며 스스로를 위로하고 희망을 찾았습니다.

우리들 나름대로 많은 노력도 기울였습니다.

그럼에도 기대하는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은 국가 경제의 근본적인 방향이 우리와 달랐다는 점과 경제 구조적 문제가 바탕에 깔려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늦게나마 원인이 밝혀지고 새로운 방향, 새롭게 추구해야 할 가치가 밝혀진 것은 큰 다행입니다.

본 국제 한인 식품주류상 총연합회는 새로운 방향, 새로운 가치를 확신하며 그에 부응하는 노력의 하나로 오는 2016년에 대규모 트레이드 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기획 단계이지만 상당한 구상과 실무적인 접촉이 물밑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 우리 후손들의 앞날을 우리 스스로 개척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이번 트레이드 쇼와 여러 사업들이 우리를 고난에서 구하고 시련을 이겨내는 단초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수고하신 각 챕터 회장님과 이사장님, 임원이사 그리고 회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며 새 해에도 변함없는 사랑을 기대합니다.

본 총연은 지난 20여 년 동안 헤쳐온 험난한 길을 더욱 힘차게 헤쳐 나갈 것이며 보다 풍부한 열매로 회원 여러분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 차게 해 드릴 것을 아울러 약속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진섭

국제 한인 식품주류상 총연합회 이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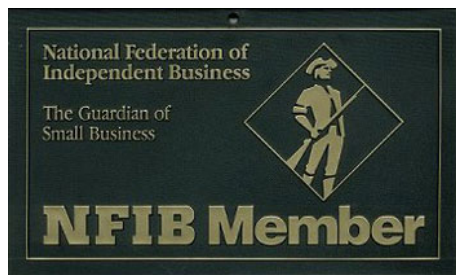
# Industry News



## 민주적 운영 대자본으로부터 독립 ... 영향력 극대화

### 미국 내 기업로비 단체 1위 “초강력 파워”

#### 소상공인 법정단체 출범- 미국 전미자영업연맹



소상공인 법정 단체의 출범으로 전국 경제인 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5단체에 이은 경제 6단체의 탄생이 예고

되고 있다. 소상공인 법정단체는 소상공인 중심의 단체라는 면에서 미국의 전미자영업연맹(National Federation of Independent Business 이하 NFIB)과 흡사하다. 1943년 발족된 NFIB는 70여년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

조길중 국민대학교 교수(컴퓨터관리업협동조합 이사장)에 따르면 “NFIB는 Fortune지 선정 미국내 기업로비 단체 1위, 전체 이익단체 중 3위의 로비단체로 인정받는 강력한 단체”다. 과연 이 단체는 어떻게 해서 그러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실제로 어떻게 소상공인을 위해 기여하고 있을까.

### 대자본으로부터의 독립추구

1998년 중소기업학회지 ‘중소기업연구’에 게재된 ‘미국의 중소기업 지원기관 연구(이재규 대구대 교수)’에 따르면 NFIB는 철저히 정부기관 및 특정 단체 그리고 자본으로부터 독립하여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NFIB는 운영과정에서 정부의 자금지원을 일체 받지 않는

다. 또 소수집단의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해 회비도 2007년 기준 최고 연 \$ 2400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고, 최소 회비는 \$ 100로 책정돼 있다.

아울러 조직 운영도 철저히 민주적이다. 특정업종이나 특정 사업 부문을 위한 특수한 이익의 해결이 아닌 소상공인업계 전반적인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따라서 NFIB의 정책은 전회원의 직접 투표에 의해 결정된다.

어떤 문제에 대한 의결투표는 매 6주마다 전 회원을 상대로 이뤄지며, 연방정부의 법률에 대해서는 연간 5회, 주정부에 대해서는 최소 연 1회 투표를 실시한다. 결과가 나오면 의회와 주정부 입법기관에 제시한다. NFIB에 협조적인 의원에게는 정치헌금을 기부하고, 비협조적인 의원에게는 반대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정치적으로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NFIB의 회원은 1993년 기준 60만 명에 이르고, 이들이 고용하고 있는 직원은 700만 명이 넘는다. 회원기업들의 매출 총액은 7천4백7십억 달러에 이른다. 중소기업의 규모에 대한 표준적인 정의는 없지만, NFIB 회원의 평균 직원 수는 5명이고 매출액은 250,000 달러 수준이다.

### 소상공인 단체, 어떻게 강해지나

#### 지방 조직 활성화, 재정자립에서 찾아야

조직의 힘은 그 단체에 법적 지위를 부여했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조직에 얼마나 많은 소상공인들이 유기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 같은 조직력과 조직 운영과 관련한 재원 마련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이후 발족될 소상공인 단체의 운영비는 우선 정부의 보조금으로 충당되게 돼 있다. 현재 중소기업중앙회



에 대한 정부 보조금은 약 60~70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이 보조금은 수 백명에 이르는 직원 급여를 충당하는 것도 빠듯하다. 그런데 중앙회는 매년 이 보조금 때문에 정부 감사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고, 또 보조금을 타내기 위해 친 정부 성향을 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왜냐하면 회원단체로부터 들어오는 회비 수입이 6-7억여 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후 발족될 소상공인 단체의 관건은 매년 들어오게 될 정부 보조금 이외에 실제 회비를 내는 회원들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그 성패가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회원들을 중심으로 철저히 민주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게 된다면 이 단체는 일약 한국사회에서 가장 정치경제적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단체로 부상하게 될 것이다.

그 동안 전경련이나 경총과 같은 대기업 단체들은 자본을 매개로 힘을 행사해 왔다. 반면 소상공인 단체는 조직원 숫자가 이들 단체들과 비교할 수 없이 많기 때문에 특히 선거국면에서 강력한 위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 건강보험 공제 연장 등 실질적 영향

### 전미자영업연맹(NFIB) 어떻게 활동하고 있나

구체적으로 NFIB의 활동과정을 보자. 앞의 이재규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1991년 NFIB는 회원 중 15,001명에게 설문지를 배부, 5,200매(33.5%)를 회수했는데, 그 주요한 설문조사 결과는 강제 건강보험 문제가 소상공인업계의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뽑혔고, 그 다음이 연방소득세, 현금부족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NFIB는 강제 건강보험에 대해 현황과 대안을 제시한다. 당시 미국인 가운데 3,600만 명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었다. 따라서 일부 국회의원들은 이들이 강제로 보험에 가입하게 하되 비용은 고용주가 부담하게끔 하는 법안을 추진했다.

문제는 대부분 직장인들은 고용주가 제공하는 보험에 가입돼 있으나, 주로 가족기업이 운영하는 기업 직장인들이 보험에 가입되지 않고 있었다는 데에 있었다. 이들 고용주들은 대부분 임시직, 아르바이트를 통해 고용을 하고 있었고, 재

력이 매우 미약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따라 NFIB는 NFIB 회원 94%가 강제 건강보험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정했고, 이같은 강제보험은 오히려 기업창업 또는 기업성장을 막을 우려가 크며, 영세 소기업의 이익을 감소시킨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 같은 입장은 의회에 전달돼 결국 강제 건강보험 제도 추진은 좌절됐다.

최저임금인상법, 양육휴가, 자영업자 건강보험 공제 등의 사안에 대해서도 NFIB의 입장은 관철됐다

### “맥주 양이 줄었네”...슈퍼마켓 덮친 ‘슈링크플레이션’

최근 글로벌 식품기업들이 기존 가격을 유지하는 대신 제품의 크기를 줄이는 ‘슈링크



플레이션’ 세계적으로 인기가 높은 캐드버리 밀크 초콜릿. 지난해엔 가격을 유지하는 대신 중량이 4g 줄어들어 논란이 됐다.

전략에 눈을 돌리고 있다. 이렇게 되면 기업은 소비자들의 심리적 저항을 피하면서도 원가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이득이지만, 이는 향후 전반적 물가 상승을 예고하는 전조일 수 있어 우려된다.

블룸버그 통신은 런던 소재 컨설팅업체 DRPM그룹 설립자이자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고문을 지낸 저명 경제학자 피파 맘그렌의 분석을 토대로 슈링크플레이션 전략이 다시 두드러지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이란 기존 제품과 같은 가격임에도 크기와 중량을 줄인 상품을 팔아 사실상 가격을 올리는 효과를 보는 기업의 판매전략을 가리키는 말이다.

맘그렌은 “1970년대 인플레이션이 닥치기 직전까지 기업들이 제품의 크기를 줄였다”면서 최근 슈링크플레이션이 재등장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달 세계 4위 맥주업체 ‘칼스버그’는 러시아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해 판매가 인상을 피하기 위해 맥주병 크기는 유지하되 들어가는 맥주량은 줄이겠다고 밝혔다.



# KAGRO Photo Gallery

## 51차 코스타리카 총회













## 국제한인식품주류상 총연합회 2016년에 대규모 식품쇼 연다

**허성칠 회장 2016년 회장 출마 자격 이사회 95% 찬성으로 통과.  
51차 총회 “새로운 도약의 길” 트고 캐그로 마을 현황 설명 곁들여**

국제 한인 식품주류상 총연합회는 지난 10월 25일부터 29일까지 코스타리카에서 제 51차 총회를 열고 2016년도 식품쇼와 캐그로 마을, 생산업체와의 협력 관계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로스앤젤레스와 뉴욕, 필라델피아, 매릴랜드, 북가주 등 25개 챗터 회장과 이사장 등 80여 명의 대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51차 총회에서 허성칠 회장은 개막 연설을 통해 “경기 회복 속에 갈수록 스몰 비즈니스의 사업 환경은 갈수록 악화되는 경제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전 미주의 29개 챗터가 굳게 뭉쳐 힘과 지혜를 모아 장단기 대책을 실행에 옮기고 있는 만큼 가시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허성칠 회장은 장단기 대책의 하나로 국제 한인 식품주류상 총연합회 주관 하에 대규모 식품쇼가 열릴 것이라고 예고하면서 그 시기를 2016년으로 잡았다.

총연이 준비중인 식품쇼에는 음료 주류 육류 및 해산물 채소 가공식품 유제품 간식 등 미국인들의 일상과 식탁을 지배하는 주요 먹거리 대부분이 출품돼 향후 식품업계의 진출 방향을 모색하고 한인 식품업계의 체질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51차 총회에서는 특히 2016년도 식품쇼가 성공적으로 치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한 결과 허성칠 회장이 계획부터 진행, 마무리까지 일괄 지휘할 수 있는 길을 터 놓았다.

2015년에 임기가 끝나는 허성칠 회장이 원할 경우 다시 한 번 총연 회장에 출마할 수 있도록 총회에서 결정한 것이다.

대의원 투표 결과 95%의 찬성으로 이루어진 이번 결정으로 허성칠 회장은 내년도 회장 선거를 통해 2016년도 식품쇼를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닦여 성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이번 총회에서는 또 충남 보령시에 계획중인 kagro 타운 건설에 대한 결과 보고가 발표돼 주목을 받았다.

보령시에서는 일정 이상의 인원이 입주를 희망할 경우 타당성을 인정해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재확인한 만큼 총연에서는 각 챗터를 통한 홍보와 입주 희망을 지속적으로 접수하기로 했다.

이날 현재 보령 캐그로 마을에 입주를 희망한 회원은 60여 명으로 알려졌다.

이번 총회에서는 또 주류 회사와 음료 업체 등 전국 규모의 생산업체와 총연을 연결하는 사업에서 각 챗터 회원 파악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현실을 감안해 총연에서 실시하는 챗터별, 권역별 회원 파악에 각 챗터가 적극 협력한다는 점을 재확인 했다.

총연은 각 챗터의 협력을 바탕으로 전국 규모 또는 권역별 로컬 업체와의 활발한 접촉을 통해 지역 한인 경제 활성화에 앞장선다는 것도 의결했다.

허성칠 회장은 “이번 총회를 통해 각 챗터의 노력은 더 커지고 현실 경제는 더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이런 때일수록 총연의 역할이 더욱 강조돼 어깨가 무겁다고 했다.



# 2014 Hottest Items from Korea

www.vilac.co.kr

## Vilac Cup Rice



4 Flavors (Fried Kimchi / Seafood / Chicken Curry / Black Bean Sauce)

Sunghyun Seo | seosh@vilac.co.kr  
82-51-630-7363

Conveniently enjoy a meal!  
Ready in just 3 minutes!

www.daesangfnf.com

## Daesang FNF Kimchi



Eunkyung Woo  
82-2-3290-8841

ekwoo@daesang.com

www.mhrg.kr

## Manuka and Ginseng Manuka Honey & Red Ginseng Stick



Angela Lee | angela@mhrg.kr  
82-2-577-3389

www.chois1.com

## Choi's 1 Seaweed Snack



A true "Super Food" from the Sea!  
5 Flavors (Original / Natural / Teriyaki /  
Hot & Spicy / Wasabi)

Butler Oh | butler.oh@gmail.com  
1-347-556-3113

www.bcsroyal.com

## bcs International Seaweed Brittle



The healthy alternative to chips!  
4 Flavors (Sesame Seed & Sea Salt /  
Crushed Almond / Sesame Seed &  
Hot & Spicy / Wasabi & Sea Salt)

Susan Kim | skim@bcsroyal.com  
1-718-392-3355

www.gitdeum.com

## Gitdeum Seaweed Crunch



Seaweed Crunch is Kimbugak  
(Korean traditional snack) made  
with seaweed and rice flour.

- Gluten-free  
- No synthetic coloring  
- No artificial flavoring

Tae-sung Yang | tsyang@gitdeum.com  
82-63-715-1900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at** Center New York

Korea Agro-Trade Center, New York  
111 Great Neck Road, Suite 503, Great Neck, NY 11021  
mkim@at.or.kr | Tel: 516-829-1633



KT&G



# timeless TIME CIGARETTE



**MADE IN KOREA**

SURGEON GENERAL'S WARNING: Quitting Smoking Now Greatly Reduces Serious Risks to Your Health.

Global Trading Inc. **KT&G USA**

Address : 2605 North Van Buren, Enid, OK 73703 USA

Toll Free(Order) : 1-877-580-5506 / Fax : 1-580-237-0610

# CHAPTER NEWS

## LA 한인 식품협회

● 남가주 한인 식품협회 트레이드쇼  
2,000여명 몰려 성황



남가주 한인 식품협회가 LA 지역에서 리커스토어 및 마켓을 운영하는 한인 업주들의 비즈니스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고 나섰다.

남가주 한인 식품협회는 본보 후원으로 21일 오전 10시~오후 5시 LA 컨벤션센터 콘코스 홀(Concourse Hall)에서 한인 및 주류사회 업체 73곳이 총 90개 부스를 마련한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의 'KAGRO 트레이드 쇼'를 열고 행사장을 찾은 2,000여 한인들에게 벤더들이 전시한 다양한 최신제품을 살펴보고 저렴한 가격에 이들 물건과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날 행사는 버드와이저, 펍시, 네슬레, 남가주 에디슨, 제트로 홀세일 등을 비롯한 주류 대기업과 롯데, 해태, 농심, BBCN, 월서은행, 한미은행,뱅크카드 서비스, 왕 글로벌,

캘코보험 등 다양한 업체들이 참가해 한인 방문객들의 제품·서비스 관련 질문에 답변하고 교류를 나누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특히 벤더 부스 중 상당수를 차지한 식료품 업체들은 즉석에서 방문객들에게 자사 제품을 시식·시음할 수 있도록 배려해 업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이날 행사를 통해 요즘 젊은층으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각종 에너지 드링크가 전시돼 리커 및 마켓 업주들의 관심을 끌었다.

사우스LA에서 '워싱턴스퀘어 마켓'을 운영하는 브라이언 송씨는 "트레이드 쇼가 열린다는 내용의 신문 기사를 보고 행사장에 나왔다"며 "소매상 및 도매상에 물건을 공급하는 업체 관계자들과 네트워크 다지고 최신 제품에 대한 정보도 얻는 등 매우 알찬 행사였다"고 말했다.

샌드위치·패스트리 전문 업체 '랜드샤이어'(Landshire)의 팀 나이그렌 미 서부 지역 세일즈 디렉터는 "LA 지역 리커스토어·마켓은 한인들이 장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행사를 통해 우리 회사가 생산하는 최고 품질의 음식을 한인 상인들에게 소개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김중철 KAGRO 회장은 "한인 리커스토어·마켓의 저변확대에도 불구하고 많은 한인 업주들은 식료품 업계 최신 동향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다"며 "이번 행사가 스몰 비즈니스들이 불경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트레이드 쇼에 참가한 업체들은 부스 한 개당 1,000달러



를 지불했다고 KAGRO는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매 시간마다 경품추첨이 진행돼 분위기를 한층 돋우었으며 39인치 LED TV, 김치냉장고, 커피메이커 등 다양한 상품이 당첨자들에게 돌아갔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김현명 LA 총영사, 제임스 안 LA 한인 회장, 전석호 LA 한인상공회의소 회장, 미셸 박 스틸 가수 조 세형평위원회 부위원장, 커렌 프라이스 LA 시의원, 티나 니에 토 LAPD 올림픽 경찰서장 등 한인 및 주류사회 VIP들도 참석해 트레이드 쇼 개최를 축하하고 행사장을 돌며 벤더들이 전시한 제품들을 살펴보았다.

## LA 전역 스왑밋 유통 '불법 의약품' 대거 적발



한인타운과 인근 지역을 비롯한 LA 전역의 스왑밋 등에서 불법으로 처방약 등 의약품을 판매·유통해 온 업자들이 대거

적발돼 LA시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시 검찰은 불법 의약품 판매에 대한 지속적 단속을 펼쳐 주민들의 건강에 해가 되는 불법 의약품 유통의 고리를 끊겠다고 천명했다.

2일 마이크 퓨어 LA시 검사장은 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압수한 불법 의약품 유통단속 결과를 설명했다. LA시 검찰은 최근 불법 의약품 단속을 통해 무자격자 5명을 기소했다고 전했다.

시 검찰에 따르면 현재 남가주에는 주로 스왑밋 등을 중심으로 약재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불법 의약품이 폭넓게 유통되고 있다. 특히 이들 유통업자와 소매업주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불법 의약품을 구입한 뒤 비싼 가격으로 되팔면서 이득을 챙기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유통업자와 소매업주 5명은 모두 무자격자로 다양한 종류의 불법 의약품을 취급했다. 시중에 유통됐다가 압수된 불법 의약품은 '항생제, 항균성분 분말, 스테로이드 연고, 다이어트 알약, 이뇨제'를 비롯해 액상 오일, 실리콘까지 포함됐다.

검찰은 압수한 불법 의약품은 처방전이 필요하거나 미국에서 판매 금지된 제품이라고 전했다. 압수된 불법 의약품은 '영아라벨, 의약품 번호, 유통기한'이 전무하고 일부 제품은 포장 이 안 된 채로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유통업자들이 LA 한인타운 등 도심 전역에서 조직적인 유통망을 구축해 불법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검찰은 불법 의약품 유통행위가 곧 소비자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다고 강력한 단속의지를 드러냈다.

## 뉴욕 한인 식품협회

### 뉴욕시장 대용량 설탕음료 규제 시사 - 관련업계 바짝 긴장

빌 드 블라지오 뉴욕시 행정부가 또 다시 대용량 설탕음료 규제 방안을 검토하고 나서 관련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드 블라지오 시장이 주요 소다음료 제조업체 대표들을 비롯해 시보건국 관계자 등과 비공개 회의를 열고 설탕음료를 제한하는 새로운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필 왈작 시장실 대변인은 16일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드 블라지오 시장은 대용량 설탕음료 규제를 지지한다는 명확한 의사를 밝혔다'며 "행정부는 현재 비만 원인의 하나인 설탕음료 섭취를 줄이는 목표를 달성할 최선의 길을 찾고 있다"고 전했다.

마이클 블룸버그 전 시장이 추진하던 패스트푸드점, 식당 등에서의 16온스 이상 설탕음료 판매 금지 규정은 관련 업계의 반대로 오랜 법정 싸움을 벌인 후 올해 6월 마침내 뉴욕주 향



소법원으로부터 최종 위법 판결을 받으며 수포로 돌아간바 있다. 드 블라지오 행정부가 들어선 후 설탕음료 규제와 관련해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지만 이번 음료업계 관계자들과의 회동을 통해 조만간 새로운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특히 드 블라지오 시장은 이번 회동에 코카콜라, 닥터페퍼 등 미국내 대형 음료업체 대표를 초청해 뉴욕시 비만율을 줄이는 설탕음료 정책을 함께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업체는 2020년까지 소다음료의 칼로리를 20%까지 낮추겠다고 지난달 발표한 바 있다.

### ● 한국식품의 주류 유통업계 진출 활발

기존 한인이나 아시안 인구가 밀집된 지역 수퍼마켓에 국한됐던 한국식품 판매가 미국계 유명 체인 수퍼마켓들로 퍼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한식업체들이 날로 높아지는 한식의 인기를 이용해 적극적으로 유통망 확장에 나서고 있는데다 그 동안 시큰둥하던 미국계유통업체들에서도 손을 뻗으면서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각종 한국식품들이 전국적인 체인을 두고 있는 수퍼마켓들에 하나둘 입점하기 시작했다.

뉴욕시 5개 보로에만 160여개 매장을 운영하는 식품점 '키푸드(key food)'는 지난달 말부터 소스류 섹션에서 쌈표 고추장, 된장, 쌈장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한국 식품을 들여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키푸드 아스토리아 지점의 한 매니저는 "코리안 칠리소스로 고추장을 찾는 고객이 늘고 있다"며 "우선 시범적으로 판매를 진행한 후 소비자들의 반응을 보고 추가 주문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홈메이드 김치를 만드는 '미시즈 김스 김치(Mrs.Kim's Kimchi)'는 9월 초 유기농 마켓으로 유명한 '홀푸드(whole foods)' 마켓 입점에 성공했다. 현재 뉴저지 엠티워터 지점과 맨하탄 어퍼웨스트사이드 지점, 콜럼버스서클 지점 등 3곳에서 판매중이다.

지나 김 대표는 "건강과 암 예방에 좋은 김치의 효능이 알려지면서 홀푸드에서도 김치 제품을 찾고 있던 중이었다"며 "미시즈 김스 김치가 조미료를 쓰지 않은 오가닉 김치라는 것이 홀푸드의 제품 컨셉과 맞아떨어져 이번 계약이 성사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유기농 마켓 '트레이더 조(Trader Joe's)'는 현지 한 식업체로부터 제품을 받아 '트레이더 조' 브랜드를 달고 다양한 인스턴트 한식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한국식 갈비와 파전, 미역무침까지 다양한 메뉴를 갖추고 있으며 바로 조리해 먹을 수 있는 간편식들이다.

온라인 마켓의 성장과 함께 온라인을 통한 판매망도 확대됐다. 현재 농심, 오뚜기, CJ 등 미국내 공장을 두고 있는 식품업체들은 세계 최대 온라인 소매업체 아마존닷컴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다. 다. 대부분 배송기간에 따라 음식이 변하지 않는 가공식품들로 라면 종류가 가장 많고 과자, 장류, 캔 반찬, 인스턴트 국 등 다양하다.





농심 아메리카의 서진욱 매니저는 "온라인 판매는 일반 소매 업체 판매보다 소량 배송으로 신경써야 할 부분이 많다"며 "농심 아메리카는 일찌감치 아마존닷컴 전담팀을 별도로 구성해 온라인 판매에 주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 캘리포니아 한인 식품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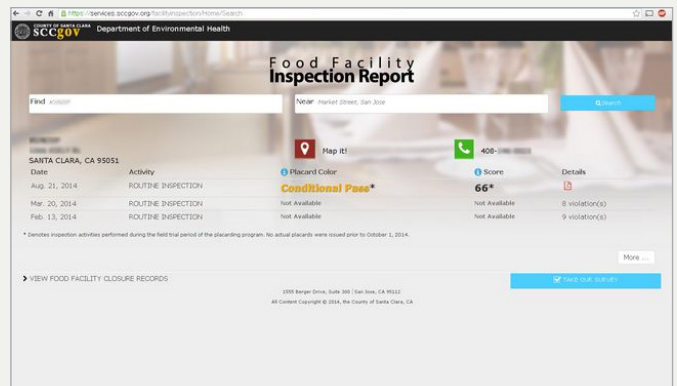
### 산타클라라카운티 '요식업소 위생 등급·점수제' 시행

산타클라라카운티가 식당, 카페테리아, 커피숍 등 요식업소에 대한 '위생 등급 및 점수제'를 전격 도입한 가운데 카운티내 대다수 한인 업소들의 위생 상태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개선과 시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타클라라카운티 보건국(DEH)은 3일부터 각 업소에 대한 '위생 등급 및 점수제' 시행에 돌입했다. 지난 4월 카운티 의회에서 통과된 이 제도는 DEH가 각 업소들의 위생 상태를 불시에 점검, 결과에 따라 색깔별 스티커(초록색은 '통과'·노란색은 '조건부 통과'·빨간색은 '영업정지')를 발부하는 것으로 스티커는 소비자들이 볼 수 있도록 출입구 등에 부착해야 한다. 샌프란시스코와 알라메다, 새크라멘토카운티에서는 이미 시행중이다. DEH는 이번 등급제 실시와 더불어 각 요식업소의 위생 점검 결과를 알려주는 웹사이트([www.sccgov.org/SCCDineOut](http://www.sccgov.org/SCCDineOut))를 개설해 누구나 각 업소의 위생 상태를 검색할 수 있도록 했다. 웹사이트에는 등급제 시행 이전의 점검 결과도 담겨있다.

본지가 이 웹사이트를 통해 검색해본 등급제 시행 이전의 한인 업소들의 위생 상태는 실망스러운 수준이었다.

그동안 점검 당국과 업주들만 알고, 정작 식당을 찾는 소비자들은 모르고 넘어간 위반 사례들이 수도룩 했다. 주요 항목(Major)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도 꽤 됐고, 경미 항목(Minor)까지 범위를 넓히면 한 건도 적발되지 않은 업소는 거의 찾아 볼 수



없을 정도였다. 위반 사항도 식재료 저장고·싱크·도마 등 설비 불결, 직원들의 푸드 핸들러 카드 미소지, 음식물 보관함에 직원 신발 보관 등 다양했다.

특히 한인은 물론 타민족들도 많이 찾는 K 한식당의 경우, 지난 2월과 3월, 8월 등 3차례 실시한 점검에서 종업원들의 손 청결 불량, 주방에서 쥐와 벌레 발견, 싱크 및 테이블 불결 등 총 27가지를 위반하다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한 한인 요식업소 관계자는 "많은 한인 요식업주들의 위생에 대한 의식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 위반 사실들이 속속 공개돼 한인은 물론 주류사회에 '한인 식당은 더럽다'는 인식이 자리 잡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웬도리 미셸 산타클라라 공보관은 "요식업소들의 위생은 주민들 건강과 직결되는 사항"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위생 등급제 도입은 주민들의 건강을 철저히 보호하겠다는 카운티 정부의 의지"라고 말했다.

## 조지아 한인 식품협회

### 한식당 '돌솥' 혼란 가중

한식에서 널리 사용되는 돌솥이 조지아주 위생규정에 어긋나는지 여부를 놓고 혼란이 가시지 않고 있다. 귀넷카운티 보건부의 애매모호한 규정과 집행관행 때문이다. 조지아 한인 외

식협회는 2일 둘루스에서 귀넷카운티 위생규정 세미나를 열었다. 귀넷, 록데일 카운티 보건부 지역매니저 데이빗 혼스비가 강사로 나섰고, 약 45명의 회원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강연 후 일부 참석자들은 “위생 문제로 돌솥 사용이 금지됐다고 신문에서 봤는데 사실이나”고 질문했다. 귀넷카운티 보건부에 따르면, 용기사용가능 여부는 조지아주 식당 위생규정 ‘주방도구와 식기 재료’ 조항(290-5-14-.05)에 의거한다.

이 조항은 ‘색이 물들거나 냄새, 습기를 흡수하는 물질, 금이 가거나 흡집이 생기거나 휘는 물질’로 만들어진 식기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건은 돌솥이 습기나 냄새를 흡수하느냐 여부다. 식품안전 관리 강사 제시카 류씨는 “돌솥, 돌뚝배기 등 돌로 된 용기는 음식물을 흡수하므로, 사용할 수 없다”며 “일부 한국제품은 특수 코팅이 돼있어서 괜찮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답변했다. 그는 이날 세미나에서 통역을 맡았고, 돌 용기 관련 질문에는 직접 답변했다. 류씨는 이어 “한국뿐 아니라 돌 용기를 사용하는 나라는 많다. 하지만 나무 도마와 마찬가지로 돌 용기는 일체 사용할수 없다”고 단언했다.

혼스비 매니저는 본지의 문의에 “만일 용기 제조사가 자신의 제품이 물을 흡수하지 않고 안전하다는 근거자료를 제시하면 검토 후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업주가 적극적으로 인증절차를 거쳐야만 돌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그동안 아무 문제없이 돌솥을 사용해온 한식당 업주들은 고개를 가우뚱하고 있다. 실제로 돌솥에 대한 단속은 이



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둘루스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는 안성호 외식협회장은 “10여년간 인스펙터들이 우리 식당에 수십 번 다녀갔다. 우리가 돌 용기를 사용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 한번도 문제삼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 버지니아 한인 식품협회

### ● 버지니아주 주류 가격이 12월 8일부터 인상



이번 주류값 인상은 테리 맥컬리프 주지사가 향후 2년간 예산 부족분 24억 달러를 메우기 위해 내놓은 정책이다. 버지니아주가 주류관리국(ABC) 제프리 페인터 국장은 “15달러 주류 기준 약 24~29센트 가량 인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ABC에서 판매되는 술은 모두 도수가 높은 주류이며 매장은 350여 점이고 납품하는 식당 및 술집의 수는 1만 4000여 곳에 이른다. ABC는 버지니아주에서 직접 관리하는 기관이다.

한편 지역 양주 양조장들은 울상이다. 양조장을 운영하는 스킷 해리스 씨는 “ABC를 통하지 않는 지역 맥주 양조장이나 와이너리에도 가격 인상 방침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버지니아 주 정부 측은 이번 인상으로 이번 회계연도에 500만 달러, 2016년에는 900만 달러의 판매 수입을 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인상으로 얻게 되는 추가 금액은 ABC 측의 회계시스템과 컴퓨터 업그레이드 등에 사용될 계획이다. 업그레이드 비용은 약 3000만 달러로 추정돼 있다. 한편 버지니아주는 미국에서 세 번째로 주류세가 비싼 곳이다.



## 메릴랜드 한인 식품협회

● EBT 기기 무상 임대 · 수수료 저렴



메릴랜드식품주류협회(KAGRO, 회장 송기봉)는 연방정부의 푸드스탬프/EBT 기기 및 부대용품 배급 규정 변경과 관련 회원들에게 보다 나은 조건을 제공하는 업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KAGRO에 따르면 연방정부가 지난 2월 7일 EBT 기기와 부대용품을 더 이상 무료로 배급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푸드스탬프 취급 업소는 기존 기기를 새 기기로 대체해야 한다. 또 사용하지 않는 기기는 바로 반환해야 벌금을 면제 받을 수 있다.

업소들은 오는 22일부터 기존 기기를 사용할 수 없으나, 푸드스탬프/EBT 계좌는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송기봉 회장은 “시일이 촉박하기에 정부 추천 회사를 임시로 사용하면서 저렴한 회사로 다시 연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정부대행 ‘CDE서비스’는 한 달 계약이기에 아무 때나 다른 회사로 바꿀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송 회장은 CDE는 셋업비용 50달러와 매달 75달러가 부과된다고 계약 시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전화 문의 시 15~30분을 기다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KAGRO는 여러 업체와 협상을 한 결과 MBI가 다른 업체보다 저렴한 수수료와 기계 무상 임대를 회원에 한해 제공하기로 했으며, 이 업체를 추천했다.

문의 KAGRO (410)244-5802, MBI (410)730-0581

● 메릴랜드 리커보드가 최근 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

메릴랜드 리커보드가 최근 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함에 따라 한인업주들이 잇달아 적발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메릴랜드한인식품주류협회(회장 송기봉)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한 한인업소에 리커보드 인스펙터들이 들이닥쳐 규정 준수 여부를 불시 점검하고 재판에 넘겨져 2주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들 인스펙터들은 업소 앞에 서성거리는 사람이 있는 데도 업주가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것을 비롯해 화장실에 비누, 페이퍼 타올, 화장지 등의 비치 여부와 가게 청결 사항을 집중 점검했다.

식품주류협회 송기봉 회장은 “이전에는 인스펙터들에게 적발되었어도 경고를 먼저 받거나 벌금을 내면 됐었는데 이제는 곧바로 재판에 넘겨져 영업 정지 처분을 내리고 있다”며 “이미 한인업주 4명 정도가 이같은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송 회장은 “불경기 등 여러 가지 힘든 점이 있겠지만 단속에 적발되지 않으려면 리커 보드의 규정을 지키고 업소의 청결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 볼티모어 시의회가 플라스틱백 금지 조례안을 추진

볼티모어 시의회가 플라스틱백 금지 조례안을 추진한다.

볼티모어 시의회는 당초 플라스틱백 1개당 5센트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이같은 계획을 철회하고 플라스틱 백 사용을 전면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같은 시의회의 결정에 볼티모어 시 상인들과 스테파니 블레이크 시장 측은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상인들은 의회의 법안 추진을 강력히 저항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블레이크 시장은 10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플라스틱 백이 종이봉투로 대체되면 시민들이 봉투 구입에 두 배 이



상의 금전적 부담을 지게 된다”며 “시의회가 법안을 통과 시키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하

겠다”고 말했다. 볼티모어 지역 환경 시민단체들은 플라스틱백 금지 조례안 추진을 반기고 있지만 “플라스틱 백을 무조건 금지시키겠다는 법을 시행하기에 앞서 시민들에게 장바구니 사용을 장려하는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MD 소매점연합회 제프 젤머 부회장은 “현재 1~2% 마진으로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그로서리 상인들은 더 이상의 세금 및 유지비 인상을 받아들일 여력이 없다”며 “플라스틱 백 금지 조례안을 추진한다면 상인들이 볼티모어 시의원들에게 제공하는 선거자금이나 정치 성금 일체를 보이콧 하도록 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한편 플라스틱 금지 조례안 추진에 대한 볼티모어 선지의 기사에서 MD 한인식품주류협회(KAGRO) 김현주 회장은 인터뷰를 통해 “볼티모어 지역 내 소매점들은 극심한 불황을 겪으며 하나 둘 씩 사라지고 있는 추세”라며 “이런 때 플라스틱 백 사용금지 추진안 같은 법안을 통과시킬 생각을 하는 시의회가 정신 나간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공화당 주지사가 취임하면 뭔가 바뀌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 워싱턴 DC 식품주류협회

● 워싱턴DC 한인식품주류협회 장애인협 등에 5000달러 전달

- 2012년부터 총 1만2000불 후원

워싱턴DC 한인식품주류협회(KAGRO, 회장 이요섭)가 15일

5개 한인단체에 1000달러씩 모두 5000달러를 기부했다. 이 회장은 이날 오후 1시30분 메릴랜드 락빌의 우미가든에서 오찬모임을 갖고 버지니아한미장애인협회(회장 수잔 오)와 메릴랜드 한미장애인협회(회장 임혜진), 실버스프링연장자 한인회(구 유니버시티가든 노이나파트 한인상조회, 회장 타이거 송), 예진회봉사사회(회장 박춘선), 워싱턴한인노인연합회(회장 우태창)에 후원금을 전달했다.

이번 후원금은 캐그로가 지난달 7일 개최한 불우이웃과 장애우돕기 기금모금 골프대회를 통해 마련한 것이다. 기금모금 연례 골프대회는 올해로 3회를 맞았다. 이 회장은 “캐그로 회원들이 비즈니스를 하느라 바쁘지만 한인사회의 불우이웃을 도우려는 마음이 있다”며 “크지 않은 금액이지만 봉사단체들이 이 기금을 아름답게 사용해 달라”고 말했다.

박인석 이사장도 “이번 기금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골고루 전해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노인연합회는 후원을 받은 단체들을 대표해 캐그로에 감사장을 전달했다.

우 회장은 “노인들과 장애인을 잊지 않고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주신 캐그로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캐그로는 2012년 3개 단체, 지난해 4개 단체에 각각 1000달러를 기부하는 등 3년간 모두 1만2000달러를 지원했다.

이날 모임에는 캐그로의 김기옥 초대회장, 어윤환 고문, 류석구 감사, 제임스 서·마이크 김부회장, 유홍규 사무총장 등이 참석, 후원단체들을 격려했다.

## ● 워싱턴DC 마리화나(대마초) 흡연이 합법화될 전망

워싱턴DC와 오리건주에서는 마리화나(대마초) 흡연이 합법화될 전망이다.

지난 4일 실시된 중간선거에서 오락적 목적으로 대마초 흡연을 합법화하는 법안이 워싱턴DC에서 65%의 찬성을 받아 통과됐다.





이에따라 21세 이상 성인인 2온스(56.7g)의 대마초를 소지할 수 있고 집에서 대마초 6그루를 재배할 수도 있게 됐다. 다만 대마초 판매는 여전히 불법이다.

오리건에서도 대마초 흡연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광에서는 의료적 목적의 대마초 사용을 허용했다.

반면에 플로리다에서는 의사가 만성 통증을 달래는 등 의료적 목적으로 대마초를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60%의 지지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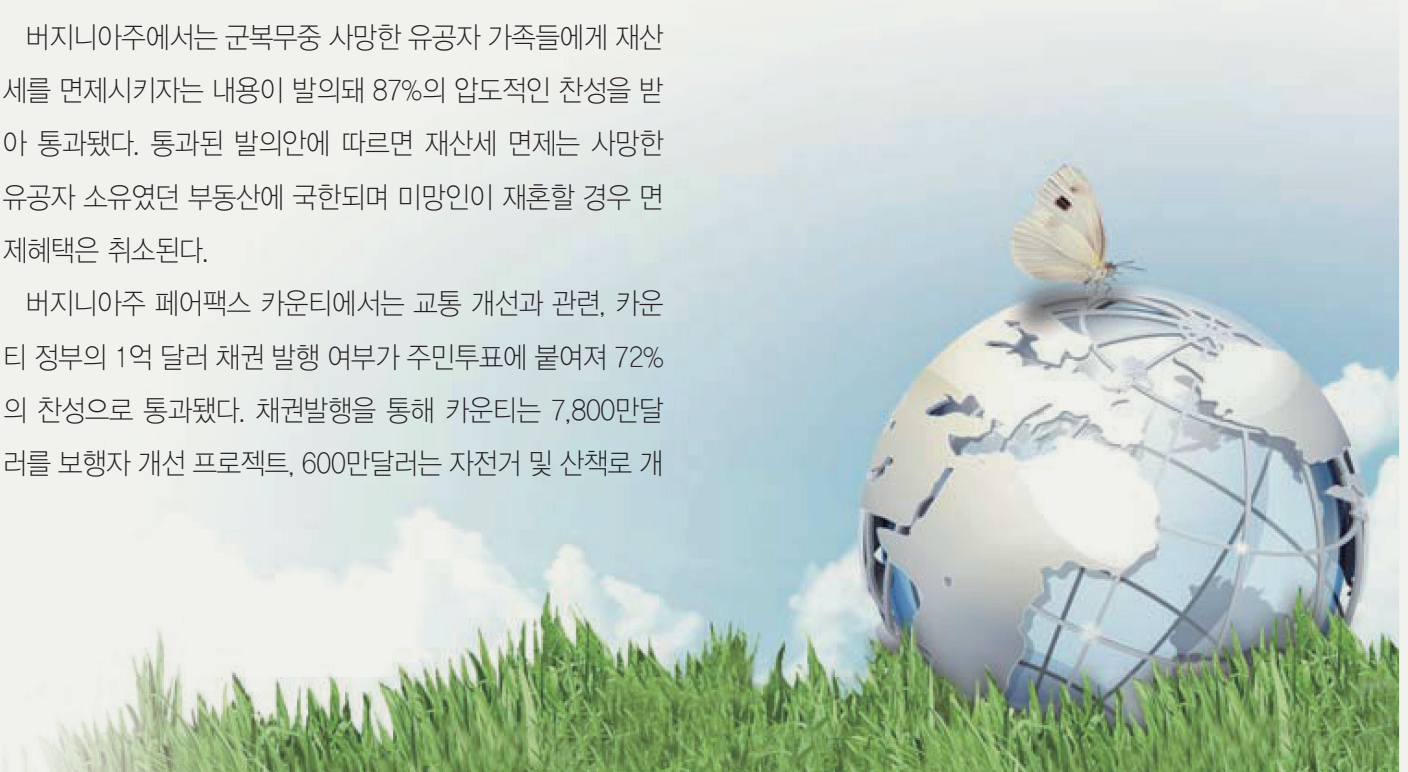
버지니아주에서는 군복무중 사망한 유공자 가족들에게 재산세를 면제시키자는 내용이 발의돼 87%의 압도적인 찬성을 받아 통과됐다. 통과된 발의안에 따르면 재산세 면제는 사망한 유공자 소유였던 부동산에 국한되며 미망인이 재혼할 경우 면제혜택은 취소된다.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에서는 교통 개선과 관련, 카운티 정부의 1억 달러 채권 발행 여부가 주민투표에 붙여져 72%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채권발행을 통해 카운티는 7,800만달러를 보행자 개선 프로젝트, 600만달러는 자전거 및 산책로 개

선 프로젝트, 1,600만달러는 리틀 리버 터파이크에서 올드 콜롬비아 파이크까지의 보도 개선을 포함한 도로 개선에 사용된다.

메릴랜드주는 현재 조성된 교통재정펀드를 이미 완성된 도로건설비용의 지불을 위해 사용할 때 제한을 두자는 내용과 교통과 관련 없는 예산에 충당되는 것을 막자는 내용의 주민투표 발의안이 찬성 81%, 반대 19%로 통과됐다.

또한 프린스조지스 카운티의 경우 총 3억달러 규모의 각종 본드 발행이 60%의 찬성으로 통과됐고 몽고메리카운티는 카운티 의회 의원들이 그들의 재임기간 동안 카운티에 거주해야 한다는 내용의 주민발의안이 94%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다.



# Business News

## 한국 입국 때 현금 미신고 처벌기준 2만달러로 높인다

얼마 전 사업차 한국을 다녀온 LA 한인 김모씨는 인천 공항 세관의 검색과정에서 휴대가방 속에 들어 있던 현금과 여행자 수표 등 1만달러 이상이 발견돼 세관 당국에 의해 장시간 조사를 받은 뒤에 결국 벌금을 납부한 뒤에야 풀려날 수 있었다. 현금뿐 아니라 여행자 수표도 외환신고 대상에 포함된다는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곤욕을 치른 것이다. 한국 정부가 출입국 때 현금 미신고 형사처벌 대상 기준을 현행 1만달러에서 2만달러로 높여 규제 수위를 완화키로 해 앞으로 김씨와 같은 미주 한인들이 현금 신고규정 때문에 곤경에 처하는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한국 기획재정부는 최근 미화 2만달러 이하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벌금·징역형 등의 현행 형사처벌을 과태료로 전환한다는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한국의 현행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출입국 때 세관, 한국은행, 외국환은행 등에 미리 신고하지 않고 미화를 기준으로 1만달러 이상의 현금을 휴대하다가 적발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한국 정부는 그러나 매년 이같은 외화 반·출입 신고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법을 어기는 재외국민 등 '선의의 범법자'가 늘고 있어 벌금·징역형 등 형사처벌 기준을 현행 1만달러 이상에서 2만달러 이상으로 높이고, 2만달러 미만 미신고에 대해서는 적발될 경우 과태료만 물린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 등 11명의 의원들이 16일자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 법안은 2만달러 이하 신고의무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처벌규정을 완화하되 단, 신고 의무를 위반한 금액이 2만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현행 벌칙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박명재 의원실에 따르면 박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적발된 외환 불법 반·출입 건수는 2011년 1,200건, 2012년 1,292건, 2013년 1,727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들어 상반기까지는 707건으로 집계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외화를 불법 반출입하는 사람보다 관련 규정을 정확히 몰라 형사처벌 받는 쪽이 월등히 많다”며 “현행 외환사범에 대한 처벌규정이 과도한 측면이 있어 정부와 국회가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외화 신고 대상에는 원화, 수표, 상품권 등 모든 지급수단이 포함되는데 이를 현금 1만달러만 해당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경제력이 커지고 외국여행객이 늘어남에 따라 외환 불법 반·출입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급격하게 늘고 있다”며 “선의의 범법자 양산을 막으려면 법과 제도의 정비が必要하다”고 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 한국 정부 재외국민들의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건강보험 자격요건을 대폭 강화

한국 정부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의료 혜택만 챙기는 재외국민들의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건강보험 자격요건을 대폭 강화한다. 한국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자로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규제심사를 거쳐 연말부터 재외국민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한국 병원에서 치료 후 출국하는 행위를 전면 차단하는 법안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건강보험 가입 후 해외에 체류하다 재입국한 재외국민도 최초 입국자와 마찬가지로 재입국한 날로부터 3개월간 국내 체류하면서 3개월치 건보료를 내야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얻을 수 있도록 적용기준을 대폭 강화한다고 정부는 밝혔다.

단 재외국민이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에도 한국에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재입국한 날부터 즉시 한국 건강보험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해외체류 재외국민들의 건강보험 가입 자격요건은 한국에 입국한 날로부터 3개월간 거주하면서 3개월 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가입 3개월 이후 수술날짜를 잡는 경우가 많고 이후에는 언제든지 미국이나 해외에 체류했다 한국에 재입국하면 곧바로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허점이 있어 보험료는 내지 않고 사실상 공짜 의료관광을 받은 뒤 출국하는 재외국

민들의 부정사례가 끊임없이 지적되어 왔다.

특히 최근에는 미국 내 값비싼 의료수가와 상대적으로 느린 행정절차 때문에 한국 내 건강보험을 이용하는 미주 한인이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재외국민들의 보험수혜 케이스 증가가 국민건강 보험공단의 적자와 맞물리자 정부가 수십 년간 성실하게 건보료를 납부한 사람들과의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뒤늦게 대책마련에 나선 것이다.

실제로 국민건강 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로 들어와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은 재외국민은 2009년 4만2,232명으로 진료금액 4,426만달러에서 지난해 9만4,849명(진료금액 9,771만달러)으로 최근 5년간 인원과 금액 모두 2.2배나 증가했다. 지난해 한국에서 건강보험을 이용해 진료를 받은 재외국민들의 국가별 현황은 중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들인 4만4,566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미국 3만5,574명, 캐나다 1만2,502명, 뉴질랜드 3,792명, 일본 3,477명, 호주 2,280명 순이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국내 들어와 건강보험 진료를 받은 재외국민은 2009년 4만2232명에서 2013년 9만4849명으로 2.2배나 늘었다.

## 한국의 최대 라면 제조업체인 농심·오뚜기, 라면 값 담합 집단 소송 위기

한국의 최대 라면 제조업체인 농심과 오뚜기가 가격담합으로 미국 내에서 집단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커졌다.

법률전문지 '로(Law)360' 등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캘리포니아북부 연방법원은 지난 4일 이들 두 업체와 미국 현지 법인을 상대로 미국 유통업체들이 낸 집단 소송이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윌리엄 오릭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미국에 있는 원고 측은 이들 업체들이 가격담합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만약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증거가 제출되면 집단소송이 승인된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2년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농심과 오투기 삼양식품 한국야쿠르트에게 가격담합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

과한 사실이 불씨가 됐다. 이들 업체는 지난 2001~2010년까지 6차례에 걸쳐 가격 인상과 인하에 대한 정보를 교환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1354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난해 7월 플라자컴퍼니와 피코마트 등을 포함해 미국 내 대형 슈퍼마켓들은 4개 업체와 이들이 미국에 설립한 미국법인을 상대로 법원에 집단소송 승인 요청을 한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법원은 삼양식품과 미국 법인인 삼양USA 한국야쿠르트와 미국 배급업체인 팔도는 증거가 없거나 불충분해 집단소송에서 제외시켰다.

한편 농심 측은 미국 내 가격담합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한국 언론들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농심은 한국에서 발생한 담합건이 미국 소송으로 변진 것이며 미국 수출 가격에는 변함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가격적인 부분에 피해가 있어야 담합이 설립되지만 미국 수출용은 가격이 다르게 산정된다고 밝혔다.

## 렌트비 체납으로 건물주로부터 퇴거 통보를 받고 길거리에 나앉게 될 처지인 세입자들

### ◇ 퇴거 세입자 대비 방법

렌트비 체납으로 건물주로부터 퇴거 통보를 받고 길거리에 나앉게 될 처지인 세입자들이 전국적으로 급증하고 있다. 사상 유례 없이 높은 임대 수요에 따른 현상이라지만 최근에는 악덕 건물주의 횡포까지 만연중이다. 조금이라도 더 높은

렌트비를 받기 위해 사소한 계약 위반까지도 강제 퇴거사유로 악용하는 건물주도 늘고 있어 문제다. 퇴거를 당한 세입자는 새로 임대할 주택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더 큰 문제로 지적된다. 세입자 스스로 악덕 건물주에 대비해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 ◇ 연간 수백만 세입가구 퇴거위기

CNN 머니가 위스콘신 주립대의 조사를 인용한 바에 따르면 치솟는 렌트비를 감당하지 못해 퇴거위기에 처한 세입자는 전국적으로 연간 약 수백만 가구에 달하고 있다. 수년간 렌트비가 고공행진을 지속하면서 렌트비를 내지 못해 퇴거 통보를 받은 세입자가 최근 급증, 주택시장뿐만 아니라 사회 문제로도 지적된다. 온라인 부동산 업체 질로우닷컴에 따르면 지난해 가구소득은 평균 약 1.8% 오르는데 그쳤지만 렌트비는 약 7% 급등하면서 렌트비가 가구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약 30%를 넘어섰다.

샌프란시스코는 최근 퇴거통보가 급증하고 있는 것과 동시에 통보에 불복하는 항소가 잇따르고 있어 이에 다른 사회 문제가 우려된다. 샌프란시스코의 경우 지난 1년간(6월 기준) 약 5,000여건의 퇴거통보가 발부됐는데 이 중 절반에 가까운 2,064건에 대해 항소가 진행 중이다.

퇴거통보는 세입자가 렌트비를 내지 못해서 발생한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건물주가 재계약 때 렌트비를 터무니없이 인상한 데 발생한 렌트비 미납이 많아졌다는 지적이다. 일부 건물주는 렌트비를 인상시키는 대신 사소한 임대 계약서 위반문제를 들고 나와 기존의 세입자를 내쫓는 경우도 많다.

### ◇ 유리한 계약조건 위해 반드시 건물주와 협상

일부 세입자들은 건물주가 제시하는 임대조건을 그대로 수락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임대조건은 건물주와 협



상을 통해 조정이가능이다. 임대 수요가 높은 요즘은 건물주 가주도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세입자에게 유리한협상을 이끌어내기 어렵다. 주택 임대와 관련 가장 흔한 협상은 월 임대료를 깎아 보는 것. 건물주에게 유리한 시장이라도 세입자의 조건이 완벽하다면 임대료를 조금낮추는 것은 그다지 힘든 협상이 아니다.

#### ◇ 보수적 예산이 필요한 시기

주택 임대 전 가구 소득과 지출 등을 바탕으로 철저한 예산을 수립하면 렌트비 인상에 대비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퇴거명령 등의 불상사로 이어진다.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전문가들은 주택비용이 가구 소득의 30%를 넘지 않도록 예산을 수립하라고 조언한다. 특히 요즘처럼 렌트비는 치솟고 가구 소득 증가는 정체인 경우 보수적인 예산 수립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최근 렌트비가 해마다 오르고 있기 때문에렌트비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조금 더 여유있게 책정해야 건물주의 렌트비 인상 때 적절히 대처할 수 있다.

#### ◇ 건물주 배경 조사

건물주가 세입자의 배경과 조건을 살살이 조사하듯 세입자 역시 건물주의 배경과 평판 등을 알아보면 좋다. 건물주



의 전과 기록을 알아보고 관련 전과 내용까지도 확인해야 임대 후에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다. 임대로 나온 주택에 대한 기록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혹시 임대매물로 나온 주택이 이미 차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대출은행 외의 채권자가있을 경우 임대 후 뜻하지 않은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 전문인에게 임대 계약서 검토 의뢰

임대 계약과 관련,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계약서 서명 전 철저한 검토가 필수다. 부동산 관련 용어, 법률 관련 용어에 대한 이해가 힘들다면 법률인이나 세입자 보호단체 등에 검토를 의뢰해 내용을 철저히 숙지하고 있어야 불이익에 대비할 수 있다. 건물주별로 사용하는 임대 계약서 양식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내용은 대부분 비슷하다. 건물주 및 세입자 인적사항, 건물 관련사항, 임대기간 및 임대료, 보증금 금액등 기본적인 사항은 대부분의 계약서에 포함되는 내용이다. 눈 여겨 봐야 할 사항은 임대료 연체 때 벌금사항 등 기타 제재사항들이다. 세입자의 생활권 보장과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적절치 못한 사항은 건물주와 상의해 임대 계약서 서명 전 조정하도록 한다.

#### ◇ 세입자 보험 반드시 가입

세입자 보험에 가입해 유사시 소중한 개인재산을 보호받도록 한다. 건물주가 가입한 보험은 건물을 대상으로 발생한 손해만 보상하기 때문에 세입자는 별도의 보험을 드는 것이 추천된다. 세입자 보험료는 연간 약 150~250달러선으로 큰 부담이 아니다. 대신 세입자의 개인 재산이 도난이나 화재 등으로 손실 또는 훼손됐을 경우 적절히 보상받을 수 있다.

또 방문자에게 발생한 인명 피해나 주택 수리 때 필요한 숙박비까지도 보상 받을 수 있기때문에 세입자 보험에 반드시 가입한다.

## ‘선불카드’ 소비자 보호 강화한다.



연방 정부가 날로 시장규모가 커지고 있는 ‘선불카드’(prepaid card)에 대한 규제강화와 소비자 보호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연방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13일 일부 선불카드 제공 회사들의 비즈니스 관행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관련 소비자 보호규정을 대폭 강화하기로 하고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밝혔다.

선불카드란 소비자들이 비자와 마스터카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등으로부터 구입할 수 있는, 일정 금액이 미리 입력된 지불카드로 일반 크레딧이나 데빗카드와 같이 물건을 구입하거나 ATM을 통해 현금을 인출할 수 있다. 미국 시장규모도 2003년의 불과 10억달러에서 2012년에는 650억달러 규모로 급성장했으며 올해에는 시장규모가 1,000억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선불카드의 경우 크레딧이나 데빗카드에 비해 소비자 보호규정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여서 소비자들이 불필요한 수수료나 이자율을 내거나 선불카드를 분실했거나 신분을 도용당할 경우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CFPB는 ▲카드 분실이나 신분도용 신고를 접수할 경우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50달러를 넘지 못하고 ▲결제 내용에 대한 분규가 있을 경우 조사가 특정기간

을 넘어갈 경우 분규 액수를 소비자에게 일단 환불토록 하며 ▲소비자가 선불카드 내용을 인터넷 또는 정규 스테이트먼트를 통해 조회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선불카드 발급회사가 수수료 등 모든 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토록 의무화한다.

리처드 코드레이 CFPB 국장은 “소비자 보호규정을 강화, 선불카드 사용자가 전통적인 크레딧카드나 데빗카드 사용자와 같은 보호를 받도록 할 것”이라며 “90일 간의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규정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저명 소비자 평가기관인 컨수머리포트가 전국 23개 주요 선불카드를 평가한 결과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와 월마트가 발급하는 ‘블루버드 카드’가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반면 타겟이 발급하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선불카드와 아이오와주에 본점을 둔 메타뱅크가 발급하는 5개 선불카드는 최하위 평가를 받았다.

## 극심한 가뭄 - 목초지 말라 사료값 상승 폐업속출

캘리포니아주의 극심한 가뭄이 낙농업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다.

LA타임스는 3일, 가주 극심한 가뭄으로 목초지와 물이 마르면서 우유 등을 생산하는 낙농업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도했다.

USDA에 따르면 미 전역에 공급되는 우유의 21%가 가주에서 생산된다. 가주 경제에서 낙농업은 1,400억달러 규모를 차지할 만큼 중요한 산업. 그러나 가뭄으로 가주에서 낙농업을 포기하는 농장은 매년 늘고 있는 추세다. 지난 3년간 가주의 낙농업 규모는 1~2%가량 줄었다. 매년 100여곳의 농장이 문을 닫고 있는 셈이다.

목초지가 마르면서 소 사료 값은 지난해 12.4%가 올랐으며 올해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지난해 톤당 200~250달러 선이던 프리미엄 건초가격은 올해 350달러까



지 치솟았다.

물 부족 역시 심각한 문제. 센트럴밸리 지역의 농장은 10배 이상 비싸진 물 값에 허덕이고 있으며 프레즈노에서는 1에이커푸트당 800~1,100달러, 툴라레는 1,200~1,800달러까지 올랐다. 툴라레 카운티 농업국의 트리시아 블라틀러는 “큰 농장의 경우 하루에 소가 마시는 물의 양만 12만6,000갤러에 달한다.”며 “많은 농장이 소에게 물을 먹이는 것조차 힘들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우유 값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8월 LA 지역 우유는 갤런당 3.79달러로 2년 전에 비해 454센트가 올랐다. 샌프란시스코는 같은 기간 89센트가 상승한 4.76달러를 기록했다. 오개닉 우유의 경우 상황은 더 심각하다. 오개닉 소의 경우 최소 1년에 120일은 초원에서 풀을 뜯어먹으며 자라도록 방목시켜야 하는 것이 USDA의 규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뭄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지면서 규정을 120일에서 90일로 줄였지만 여전히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라는 것이 업계의 말이다.

## 건강제품 수입할 경우 반드시 연방식품의약청(FDA) 등 관계기관의 승인 필수

신체기능 개선 등 인체와 관련된 제품의 과대·허위광고에 대한 연방 정부의 단속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특이 이같은 제품을 수입할 경우 반드시 연방식품의약청(FDA) 등 관계기관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

을 경우 통관 거부 및 압류를 당할 수 있어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지난달 30일 자사제품을 입기만 해도 살이 빠진다는 내용의 허위광고를 했던 일본 속옷업체 와코루와 오리건주에 본사를 둔 농 탐슨사에 대해 거액의 벌금을 부과했다. FTC는 속옷 ‘아이팬트’(iPant)를 입고만 있어도 피하지방이 줄어든다는 와코루의 광고가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 벌금 130만달러를 부과했다.

와코루는 뉴저지주에 지사를 설립, 2011년부터 미국을 포함한 10여개 국에서 아이팬트를 판매해 왔다. 지금까지 문제제품의 판매량은 30만벌에 이르지만 미국 내 판매량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 제품은 일본에서는 판매되지 않았다.

이 업체는 아이팬트가 카페인과 비타민 E 등을 함유한 초극세사 섬유로 만들어져 착용 후 28일 만에 지속적인 체중감량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광고해 왔다.

그러나 이 제품은 FDA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와 유사한 제품을 판매해 온 농 탐슨도 벌금 150만달러를 부과 받았다. 앞서 올해 초 FTC는 음식에 뿌려 먹거나 피부에 바르기만 해도 살이 빠진다고 자사 다이어트 제품을 과장 광고한 록시땅(L'Occitane) 등 4개 업체에 총 3,400만달러의 벌금을 물린 바 있다.

이에 대해 LA 총영사관의 김석오 관세영사는 “FDA에서는 제품의 구조나 형태를 보는 게 아니라 용도를 중요하게 본다”면서 “진료, 진단, 신체기능 개선, 통증완화 등의 목적이거나, 이런 내용의 홍보가 있을 경우 무조건 FDA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김 영사는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마사지 기능 제품도 첫 수입 때 이런 규정을 이행하지 않아 한국으로 반송됐다가 나중에 정식 허가를 받고 들어온 사례가 있다”면서 “허가를 받기 위한 관련규정과 절차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 연방 사법당국 불법 콘택트렌즈를 집중 단속



연방 사법당국이 처방전 없이 판매되고 있는 불법 콘택트렌즈를 집중 단속하고 있는 가운데 콘택트렌즈를 처방전 없이 불법으로 유통해온 한인 3명 등 총 12명이 적발돼 연방 검찰에 기소됐다. 연방 검찰은 LA 카운티 일대에서 처방전 없이 불법으로 콘택트렌즈를 판매하거나 불법으로 제조돼 시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콘택트렌즈 제품을 암암리에 유통해온 12명의 용의자들을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웨스트민스터에서 패션업체를 운영하는 한인 조모(60)씨와 라크레센타의 패션업체 직원인 한인 김모(51)씨 등이 처방전 없이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다가 연방 식품의약국(FDA)의 함정단속에 걸려 적발돼 기소됐다.

또 플로리다주 잭슨빌의 업체 직원 강모(53)씨도 불법 콘택트렌즈를 유통시킨 혐의로 적발돼 기소됐다고 연방 검찰은 밝혔다. 당국에 따르면 콘택트렌즈의 경우 반드시 처방이 있어야만 구입할 수 있는 의약품으로 분류되나 이들 짝퉁 컬러 콘택트렌즈들은 미 전국적으로 헬로윈 용품점이나 미용재료상, 미용실 또는 온라인 등을 통해 불법유통되고 있으며 심지어는 주유소 등에서도 적게는 개당 20달러 정도의 싼 가격에 팔려나가고 있다. 그러나 이들 짝퉁 컬러 콘택트렌즈를 착용하다가 잘못되면 눈 질환은 물론 시력까지 잃을 수 있는 위험이 있다며 컬러 콘택트렌즈가 필요할 경우 반드시 안과 의사나 검안의 등의 처방을 받아 제대로 된 제품을 구입해야 한다고 당국은 경고했다.

## ‘거주여권’이 사라진다

미국 영주권자 등 외국 이주 재외국민들에게 발급돼 오던 ‘거주여권’(PR)이 50여년 만에 사라진다.

한국 정부는 거주여권 제도를 폐지하기로 하고 관련법 및 시행령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외교부 관계자들이 한국시간 3일 밝혔다. 거주여권은 일반여권의 한 종류로 국외 영주권자나 장기 체류허가를 받은 외국 이주자들에게 발급된다. 거주여권을 발급받으면 국내 주민등록이 말소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는 국외 이주자들의 신분증명 기능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내년 1월부터 재외국민들도 주민등록증을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별도로 거주여권 제도를 유지할 필요성이 사라졌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거주여권을 일반여권으로 모두 통일하면 여권업무도 간단해지고, 재외국민도 별도로 추가서류를 내 거주여권을 받아야 하는 불편이 없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962년 여권법 및 시행령 제정 당시부터 ‘이민여권’이라는 형태로 국외 이주자를 위한 여권을 따로 발급해 왔다. 그러나 외국으로 이주하는 국민의 수가 줄어드는 시대적 추세에 맞지 않고 행정적 기능 이외에 여권 자체로서의 의미는 크게 없다는 지적을 그동안 받아 왔다. 세계적으로도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국외 이주자 가운데 41.7%만이 거주여권을 소지하고 있다. 외교부는 거주여권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해외 이주법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으며, 여권법 시행령 정비 등을 포함한 규정 정비작업을 이르면 연내 마친다는 목표다. 한편 한국 정부는 2015년 1월2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주민등록법의 후속조치로 미국 등 해외에 거주하는 영주권자와 장기체류자 등 한국 국적의 재외국민들도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마련, 입법 예고했다. 이 시행령에 따르면 영주권자를 포함한 재외국민이 한국 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



국하는 경우 주민등록을 할 수 있고, 주민등록증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주민등록을 한 거주자가 국외 이주를 목적으로 출국할 때도 주민등록을 유지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제도 시행 후 재외국민 약 11만명이 주민등록 신고를 할 것으로 내다봤다.

## IMF 기소중지자 구제 시작



한국 외환위기(IMF) 당시 금융 거래나 사업과정에서 경제범죄를 저지르고 미국으로 도피해 기소중지된 뉴욕 일원 한

인들을 위한 구제 서비스가 시작됐다.

뉴욕총영사관은 지난해에 이어 10월1일~11월30일까지 2개월간 IMF 기소중지자 특별 자수기간을 운용한다고 1일 밝혔다. 자수 대상은 1997년1월1일~2001년12월31일 ▶수표 부도 ▶임금체불 ▶채무 불이행 등으로 고소, 고발된 후 미국으로 도피한 기소중지자이다. 자수 희망자는 본인이 직접 뉴욕총영사관 민원실을 방문해 비치해있는 ‘기소중지사건 재기 신청서’를 작성해 접수하면 된다. 단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한국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해야 한다. 이 기간 자수한 경제사범은 피해를 변제하면 수배가 풀려 여권을 재발급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 고소·고발인이 동의하면 한국내 피해자들의 연락처를 제공해 피해를 직접 변제할 수 있게 해주고, 피해 변제가 끝나면 이메일이나 전화, 우편, 화상조사 등 간이방식으로 조사를 한 뒤 사건을 종결해 줄 예정이다. 한편 한국정부는 지난해 8~12월 이미 한 차례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 결과 24개국 404명, 924건의 신청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미국이 284명(588건)으로 가장 많았고, 브라질 19명(61건), 호주 14명(36건), 아

르헨티나 11명(21건), 캐나다 9명(23건) 등으로 집계됐다. 문의:646-674-6000

## “3천달러 이상 보고” 현금거래 직격탄

멕시코 마약 카르텔의 자금 돈세탁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연방 수사당국의 대대적 단속대상이 된 LA 다운타운 자바시장에 대해 불법적 현금거래 차단 목적의 ‘특정지역 수사권’ 이 전격 발동돼 앞으로 3,000달러 이상 현금거래에 대한 보고가 의무화된다. 2일 연방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 네트워크(FinCEN)은 연방 국세청(IRS) 및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과 함께 LA 다운타운 지역에 대한 ‘특정지역 수사권’ 발동을 전격 발표하고 오는 9일부터 6개월 동안 LA 다운타운 지역 내 2,000여개 비즈니스들에 대한 현금보고 의무화 기준을 기존의 1만달러에서 3,000달러로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연방 당국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마약자금 돈세탁 단속대상이 됐던 ▲의류업체들은 물론 ▲원단·봉제 등 자바 관련 업체와 함께 ▲운송업체 ▲여행사 ▲전자제품 ▲신발류 ▲화훼업체 ▲미용재료상 ▲무역업체 등 이 지역 내 대부분의 업종들까지 포함돼 막대한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이번 특정지역 수사권 발동에 따른 현금보고 의무화 기준 강화 조치의 대상이 되는 LA 다운타운 지역은 남북으로 8가~16가 사이, 동서로 샌티 스트리트~센트럴 애비뉴 사이의 자바시장 중심 구역이다. 연방 당국의 이번 조치로 2,000여개 업체들이 직접 또는 서면으로 이같은 현금거래 보고의무 강화 경고 통보를 받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LA 다운타운 지역 비즈니스들의 절반을 훨씬 넘는 것으로 자바시장은 물론 다른 한인업체에도 큰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오퍼레이션 패션 폴리스’라는 작전명으로 이뤄진 당시 급습 단속 결과 한인 업체 십수곳을 포함해 70여개가 넘는 자바시장 비즈니스들이 압수수색을 당하고 한인 2명을 포함한 업체 3곳이 연방 검찰에 기소됐었다.

Visit us at **www.kagro.org**

Our organization profile

Advertising opportunity for KAGRO Journal

Link for various KAGRO capture and Affiliate Organizations.

## 원고를 모집합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경험담이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 또는 여러분의 의견과 잡지에 대해 느끼신점 반영되었으면 하는 의견들 그리고 사업운영하며 협회에 건의사항 등 모든글들을 환영 합니다. 영어나 한글 편하신 언어로 사진 · 연락처와 함께 email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end your submission to : [kagronational@gmail.com](mailto:kagronational@gmail.com)

361-3rd Ave, New York NY 10016



## Advertising space available for KAGRO Journal

KAGRO Journal Ad ask Seong c. Heo [917 650-2125](tel:9176502125)

361-3rd Ave, New York NY 10016

e- mail : [kagronational@gmail.com](mailto:kagronational@gmail.com)





# *Dietary Revolution*

While our products were designed with diabetics in mind, we at **breaDr.™** **whole wheat bread** know that many Americans not affected by diabetes are striving to live a healthy lifestyle and can also benefit from our products.

**Low Glycemic Index**  
**Reduced Carbohydrate Content**  
**Rich in Protein**  
**Rich in Fibers**

## *Healthy Living Should Not Be a Struggle*

Many people monitoring their blood sugar levels struggle with a healthy diet because functional foods often taste bland. **BreaDr.™** recognizes this and ensures healthy products with **a delicious taste - and authentic flavors as, a healthy lifestyle should be.**

Now more than ever, people need facts so they can take control of their health and reach personal freedom through a healthier lifestyle.



**You can join us in our mission.**





# PEPSICO



Tropicana





## 몸에 좋은 견과류, 필요에 따라 골라 먹자!



정월대보름이 되면 그동안 별 생각 없던 사람도 '견과류 한 번 먹어볼까' 하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작 구입하려고 보면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막막하다. 아몬드, 잣, 호두, 땅콩, 피스타치오 등 종류가 다양할 뿐 아니라 여러 종류를 한번에 섞어 팔기도 하기 때문이다. 국적도 다양하고, 판매 업체도 많다. 그렇다고 아무 견과류나 골라잡지 말자. 원하는 건강 목적에 따라 선택해야 하는 견과류 종류가 다르고, 제대로 된 견과류 선택 방법도 따로 있다.

### choice 1 체중 걱정 : 피스타치오

견과류는 칼로리가 높아서 많이 먹으면 살찔 수 있는데, 이런 점이 걱정된다면 피스타치오를 먹자. 다른 견과류에 비해 칼로리와 지방 함량이 낮고 비타민과 미네랄, 불포화지방산 등이 풍부하다. 특히, 식이섬유소가 많기 때문에 변비를 해소시켜 체중 조절에 도움을 준다. 피스타치오는 활성산소로부터 우리 몸 세포를 보호해 주는 감마-토코페롤이 풍부해 항 노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단, 우루시올이라는 옷 성분이 들어 있어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하자. 통째로 구입해 껍질을 직접 까 먹는 것이 포만감을 높여 체중 조절에 이롭다.

### choice 2 동맥경화 예방 : 잣·해바라기씨

견과류의 지방 성분은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준다. 특히 잣에는 심장혈관 건강에 꼭 필요한 마그네슘과 올레산, 리놀레산 등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하다. 이 불포화지방산은 동맥을 이완시켜 혈압을 떨어뜨리고 심장박동을 원활하게 해준다. 평소 불면증이 있어 잠을 잘 못 자는 사람이나 겨울에 피부가 심하게 가렵고 건조한 사람이 하루 10~15알 꾸준히 잣을 섭취하면 효과를 볼 수 있다. 입안이 험거나 헛바늘이 자주 돋는 사람에게도 좋다. 성질이 따뜻하기 때문에 추워서 생기는 한랭성 복통 등에 효과적이고, 소화가 잘 되지 않을 때 먹으면 속이 편해진다. 단, 잣은 100g당 665kcal의 고열량 음식이다. 많이 먹으면 비만을 유발할 수 있으니 주의하자.

### choice 3 치매 예방 : 호두

호두는 모양이 뇌를 닮았는데 실제로 뇌 건강에 좋다. 뇌신경세포의 60%를 구성하는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이는 뇌신경세포가 파괴되는 것을 막고, 더 활발하게 움직이도록 돕는다. 호두를 하루 다섯 알씩 10년간 먹은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뇌세포 활동력이 25%

좋았다는 연구 결과(식품영양학회)가 있다. 특히, 채식주의자는 무기질이나 단백질이 부족하기 쉬운데, 호두는 이를 보충하는 좋은 공급원이다. 호두는 오메가3인 알파 리놀레닉산(ALA)도 풍부하다. 이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심장을 건강하게 한다. 아미노산 L-아르기닌과 비타민E 형태의 감마 토코페롤 역시 동맥경화를 예방한다. 하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담이 생길 수 있고, 살찔 수 있으니 조심하자.

#### choice 4 노화 예방 : 캐슈넛

견과류로 노화 예방 효과를 보고 싶다면 캐슈넛을 선택하자. 구부러진 모양이 독특한 흰색 견과류로 다른 견과류에 비해 씹는 느낌이 부드럽다. 전체의 44% 정도가 지방이지만 불포화지방산으로 구성돼 심장질환 예방 등에 효과적이다. 또한 단백질이 풍부하고 레시틴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 기억력을 강화시킨다. 캐슈넛에 함유돼 있는 셀레늄과 마그네슘 등의 미량 영양소는 신체 조직의 노화와 변성을 막는다. 캐슈넛은 플레인 요구르트와 함께 먹으면 좋다.

#### choice 5 만성질환 예방 : 아몬드

아몬드는 먹기 편하면서 항산화 효과가 큰 견과류이다. 최근에는 만성 염증이 생기는 것을 막아 대사증후군 같은 만성질환을 예방한다는 연구 결과가 속속 보고되고 있다. 이는 아몬드에 들어 있는 알파 토코페롤 성분 때문이다. 우리 몸에 가장 잘 흡수되는 비타민E의 형태로 몸속에서 생기는 만성 염증 반응과 산화 스트레스 정도를 낮춰 준다. 이외에 아몬드에는 불포화지방, 식이섬유, 마그네슘, 아르기닌, 폴리페놀 같은 생리 활성 물질이 풍부한데, 이 역시 혈관을 맑게 하고 세포 노화를 막는다. 이를 위한 통아몬드의 적정량은 한 줌(30g, 약 23알)이다. 이 정도 양이면 알파토코페롤 8mg을 섭취할 수 있는데, 이는 한국인의 비타민E 하루 권장 섭취량 73% 정도에 해당한다. 아몬드는 체중 조절 시에 먹어도 부담이 적다.

#### choice 6 피로 예방 : 땅콩

비타민 E는 활성산소로부터 세포막을 보호해 주는 항산화제다. 땅콩 10알을 먹으면 노화 방지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E 5mg을 섭취할 수 있는데, 이는 하루 필요 권장량이다. 특히, 땅콩에는 비타민E 중 우리 몸에서 가장 활성도가 좋은 알파토코페롤이 10.1mg 들어 있다. 성인 하루 알파토코페롤 권장 섭취량이 10mg이므로 충분한 양을 땅콩으로 섭취할 수 있는 셈이다. 비타민 B1, B2도 풍부한데, 이 성분은 피로를 일으키는 젖산 분비를 막아 준다. 스트레스호르몬 분비를 줄여 주는 마그네슘 역시 많이 함유돼 있다.





## 제13대 집행부 명단

|          |       |                     |
|----------|-------|---------------------|
| 회 장      | 허 성 철 | New York            |
| 대외수석 부회장 | 김 영 필 | Canada              |
| 대내수석 부회장 | 이 요 섭 | Washington D.C      |
| 부 회장     | 허 종   | Southern California |
| 부 회장     | 김 희 준 | Central California  |
| 부 회장     | 최 기 선 | Washington          |
| 부 회장     | 김 백 규 | Georgia             |
| 부 회장     | 이 원 재 | Colorado            |

### 이 사

|       |       |                |
|-------|-------|----------------|
| 이 사 장 | 홍 진 섭 | Washington D.C |
| 부 이사장 | 캐빈 최  | Arizona        |
| 부 이사장 | 강 병 목 | New York       |
| 부 이사장 | 이 광 서 | Maryland       |
| 부 이사장 | 나 광 열 | Harrisburg, PA |
| 부 이사장 | 김 세 기 | Chicago        |

### 본부 임원

|          |       |                |
|----------|-------|----------------|
| 홍보 이사    | 이 창 희 | Philadelphia   |
| 사업총괄 부회장 | 이 종 환 | Harrisburg, PA |
| 여성분과 위원장 | 김 윤 옥 | Virginia       |
| 총무이사     | 김 익 주 | Canada         |

### 감사

|     |       |              |
|-----|-------|--------------|
| 감 사 | 이 승 수 | Philadelphia |
| 감 사 | 임 광 익 | Colorado     |

## 스 폰 서

MILLER BREWING COMPAN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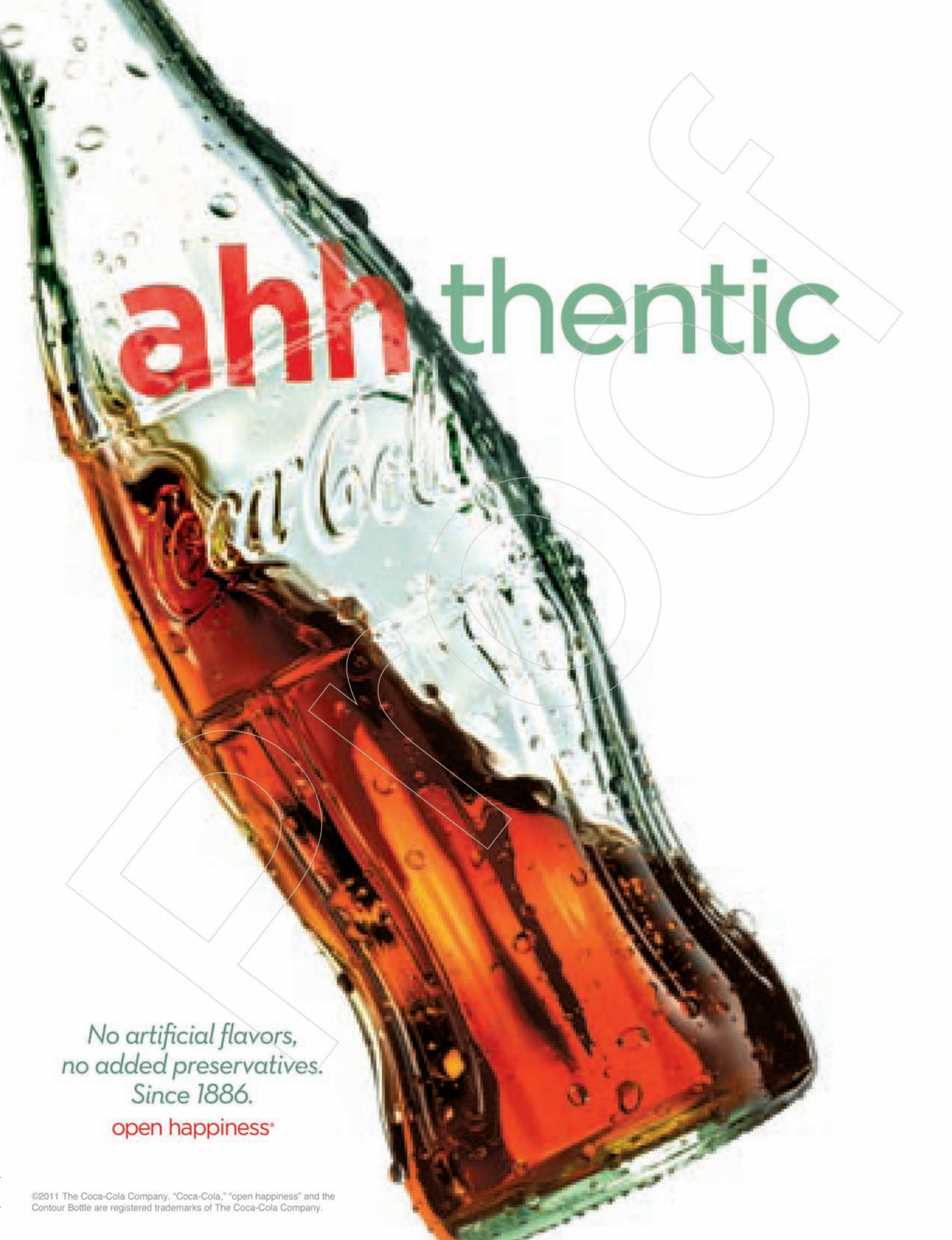
ANHEUSER BUSH INC

COORS BREWING CO

COCA COLA USA, INC

PEPSICO

*Appreciates the support of its  
advertisers and encourage you to  
patronize them*



ahh thentic

No artificial flavors,  
no added preservatives.  
Since 1886.

open happiness®





완벽한 조화.  
깊고 순수한 맛.